

'5·18 행불자 암매장 가능성' 옛 광주교도소 추가 발굴 시작



28일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 내 무연고 합장묘 인근 터에서 유골 발굴 조사에 앞서 개토제가 열리고 있다. 5·18기념재단 등은 신원 미상 유골 발굴을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한다.

발굴 앞서 개토제와 세부 추진 계획 발표

문화재 출토 방식 진행...2월1일까지 5일간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실종된 행방불명자들을 찾기 위한 옛 광주교도소 추가 발굴이 시작됐다.

28일 5·18기념재단 등은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교도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매장 추정지 발굴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5월 단체(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광주시, 법무부 등이 참석해 계

토제를 진행했다.

이어 발굴 수행 기관인 대한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발굴조사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문화재 연구원은 2월1일까지 5일간 옛 광주교도소 교도대 북쪽 일원 2888㎡ 부지를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발굴 조사한다.

조사는 수몰 제거와 조사범위 확인을 시작으로 트렌치(시굴 구덩이) 설정과 유구 확인조사, 조사 기록, 지문회의, 조사 완료 및 철수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유골 등 암매장과 관련된 물증이 확인될 시 고고학과 법의학자, 등 관련 전문가와 5·18 단체 등에 자문하고 협의 뒤 굴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 문흥동에 위치한 옛 광주교도소는 1980년 5월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 총격전이 있었던 곳이다. 당시 군 발표에 따르면 일대에서 시민 28명이 숨졌다.

하지만 실제로 수습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해 집단 암매장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5·18기념재단은 2017년부터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유력한 정보를 토대로 옛 광주교도소, 광주~

하순 간 너릿재터널 인근 도로, 광주천변 등을 조사했지만 유해를 발굴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19일 솔로몬로프크 조성을 위해 무연고자 묘지 이장 중 신원미상의 유골 40구가 발견되면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신원미상의 유골은 국립과학사건연구소에서 객체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객체작업은 70% 정도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광주시는 행불자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29일까지 유전자 자료 확보를 위한 혈액 채취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전남도, 말 산업 육성에 5년간 742억 원 투입한다

사육두수 2천두, 승마시설 40개소로 확충 계획

전남도는 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74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말산업은 2000년 이후 정부 말산업 육성방향이 승마산업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승마장 설치, 학생승마체험 위주의 승마산업 기반을 조성했다.

말 사육두수는 738두로 승마인구와 말 관련 업체(조련업, 경매업) 수가 적어 제주도, 경기도 등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이 같은 분야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말산업 정책에 맞춰 그동안의 승마산업 성과를 바탕으로 바닷가, 해안선, 섬 등 전남 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전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승마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6개 세부 추진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말 사육두수는 지난해 738두에서 2024년 2000두로 늘리고, 승마시설도 지난해 31개소에서 2024년까지 4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유소년 승마단의 경우 지난해 8개소에서 2024년까지 15개소로, 학생승마 역시 연간 1만명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말 사육환경 개선 및 번식용 승용마 구입비 용자 지원 등 3개 사업 86억원을 투입하고, 승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승마시설 확대, 말산업 특구, 말 힐링 복합공간 조성 등 5개 사업 446억원을 투입한다.

승마 대중화를 위해 △초·중·고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승마대회 개최, 승마교실 운영 등 6개 사업 206억원을 투입하며 △말 전용 조사료 단지 조성, 말산업 R&D 연구개발, 말산업 선진지 연수 등 3개 사업 4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장흥, 신안 등 서남해권은 온 가족이 말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지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말 힐링 복합 공원 조성(200여 규모)사업을 국고 신규사업으로 발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김경호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말산업은 청소년 정서함양 및 장애인 재활 등 사회공익적 가치가 크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아 승마레저 수요 증가로 성장 잠재력 가치가 있는 분야"라며 "전남 말산업 5개년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우한폐렴 확산우려에 광주 대학병원들 대책 분주

환자 면회1인 한정

출입구도 일부만 개방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4 번째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지역 대학병원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8일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두 병원은 설 연휴 동안 환자면회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출입구도 일부만 개방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외지에서 온 가족들이 한꺼번에 면회할 경우 전염 우려가 있어 보호자 1명만 병실에 있을 수 있도록 했다"며 "오늘부터 면회를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를 포함해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병원은 '우한폐렴' 관련 안내문을 병원 입구에 게시했고, 의료인력과 간병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손씻기, 기침예절,



28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출입구에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호구 착용과 같은 감염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중국어방문객, 확진환자 접촉력, 호흡기 증상 등 의심환자나 신고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전남대병원은 이날 오전 응급실 했고, 조선대병원도 선별진료소 설치를 논의 중이다.

두 병원은 이날 중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까지 전남 능동감시자 1명, 광주 능동감시자 2명이 질병관리본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A씨(57·여)는 인플루엔자 해당검체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귀가 조치됐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